





김일성에 대한 전기적 연구와 그의 항일무장투쟁 전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일련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서들.

시 국내의 조직기반이나 대중적 지명도가 미미했던 김일성의 집권과정, 한국전쟁에서의 실패를 오히려 정적 숙청의 계기로 전환시키는 통치술, 그리고 주체사상의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김일성의 전모가 북한현대사의 전개와 함께 밝혀져 있다. 저자 스스로는 "일반적인 한국사람들이 놀랄 만큼 김일성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지만, 김일성과 그의 유격대를 일제하 민족해방투쟁의 주류라고 주장하는 일부 소장학자(「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의 이재화씨가 대표적이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나마의 평가도 대단히 인색한 것이 된다.

일본 東京大 와다 하루키 교수의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은 방대한 사료를 동원해 김일성의 항일투쟁과정을 편견없이 복원한 노작으로 평가된다. 북한지도집단의 중핵을 이뤄온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동료들의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김일성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에는 특히, 지금까지 사실 자체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김일성의 청소년시절 및 항일유격대의 소련으로의 이동과정과 그곳에서의 생활이 실증적으로 밝혀져 있어 주목을 끈다.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와 남한의 가짜김일성론이 제기하는 온갖 '주장'들을 다양한 자료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 '역사'로 확정했다는 것이 이 책의 미덕으로 꼽힌다.

#### 김정일 연구는 전무한 형편

그밖의 김일성 전기로는 허동찬의 「金日成評傳」(1987, 북한연구소)과 林隱의 「金日成正傳」(1982, 한국양서)이 한때 서점가에 선을 보인바 있는데, 앞의 책은 전향한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뒤의 책은 소련으로 망명한 '조

선혁명가'의, '비판적' 김일성평전이다.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검증보다는 고발이나 폭로에 무게가 실려 있어 학문적 진정성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편이나, 「김일성 정전」의 경우 김일성 연구자에 수수께끼의 기간으로 남아있는 1941년에서 일본패망까지의 기간에 김일성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은 흥미를 끈다.

「김일성 이후」 곧 김정일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20년 가까이 후계자 준비를 해온 인물에 대해 포악하고 편집증적이며 短軀肥滿의 신체컴플렉스가 심하다더라는 식의 주관적이고 왜곡된 정보 말고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중 석씨(성공관대 강사)의 논문 「김정일연구」(1991, 「역사비평」; 1992, 「말」)가 그나마 유일한 연구로, 이 글에서 이씨는 김정일이 김일성만큼의 카리스마는 없지만 실무에 능한 테크노크라트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반면, 김일성 이후를 "소설적으로 예언한" 책들은 적지 않다. 독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 일종의 김일성사망 특수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달아 달아 밝은 달아」(홍용표, 시공사) 「북조선 붕괴」(정을병, 오늘) 「용의 날」(안봉선, 밝은세상) 「불바다」(노수민, 향실) 「터」(손우석, 답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책은 대부분 김일성 사망에 따른 북한권력층의 내분과 붕괴, 그리고 남북통일이라는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있는데, 남북문제의 장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소설적 흥미를 유발하는 단순한 소재의 차

원에서 김일성과 그 이후가 동원되고 있다는 혐의가 짙다.

#### 예언과 가상 앞세운 소설들 주목받아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관계로 고립과 궁핍에 시달리던 북한의 소장파 장군들이 오극열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일을 살해한다(「달아 달아 밝은 달아」), 김일성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중국의 등소평도 사망하자 위기를 느낀 김정일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인민군의 쿠데타와 북한주민의 폭동으로 미국 망명길에 오른다(「북조선 붕괴」), 김일성 사후 급격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북한의 평양에서 흡수통일과 김정일타도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지고 주석궁에서 쫓겨난 김정일은 권총자살로 최후를 마감한다(「용의 날」) 등으로 내용의 전개는 저마다 제각각이지만, 북한에 대한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상상으로 다뤄지는 바람에 오히려 사실 자체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사각형의 세계 [수학동화]

F.B. 니카쎌 지음/김홍래 옮김/112면/4,000원

수학의 기본 원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해서 쓴 수학동화. 수학을 싫어하던 한 어린이가 꿈속에서 수학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집합, 숫자의 가치, 4연산, 도형, 입체의 세계를 배우게 된다.

### 도덕이론을 현실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C.E. 해리스 지음/김학택, 박우현 옮김/288면/6,000원

딱딱하게 느껴지기 쉬운 도덕 철학의 중요한 도덕 이론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문제에 적용시키면서 쉽게 풀어 쓴 실용적인 성격의 윤리 입문서이다.

### 미네르바의 올빼미: 철학이란 무엇인가?

C.J. 본넬포, S.J. 오넬 역음/윤용택 옮김/320면/7,000원

철학이란 무엇이며, 철학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책. 철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각견이 있고 영향력 있는 18명의 현대철학자들에게 의해 씌어진 철학 입문서.

### 합리적 결단과 인과성

E. 엘스 지음/우정규 옮김/336면/7,500원

이 책은 1980년초까지 이루어진 결단과 관련된 논의들의 기초와 논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뉴컴의 역설"이라 알려진 결단 이론적 역설, 결단 문제의 관련 예들, 인과적 결단 이론 등을 다룬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